

부산 체육

Vol.11
2018 $\frac{1}{2}$



BUSAN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월드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40,000
TOTAL NEW
JOBS CREATED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49
TRILLION WON
IN REVENUE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지상최대규모의 축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
TRILLION WON
IN REVENUE

2
THE WORLD'S
BIGGEST
EXPO

멀게만 느껴지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조금만 다가서면 보입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30,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와 먼 이야기 만은 아닙니다.
대규모 경제 상승효과와 대폭 늘어나는 일자리, 5천만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 엑스포를
여기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BUSAN
WORLD
EXPO
2030



54만개 일자리 창출

엑스포 유치는 약 5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천만 관람객 유입

전세계 및 국내 5천만 관람객이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합니다.



지상최대규모 축제

국내를 물론, 해외에서도 손꼽을
최대규모의 축제입니다.



49조원 경제효과

엑스포 유치는 약 49조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6개월 행사기간

6개월의 장기 행사를 통한
홍보효과로 부산은 세계속의
유명 관광도시가 될것 입니다.

목 차



- | | | | |
|----|--|----|------------------------|
| 5 | 신년사 | 2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 수여 |
| 8 | 이달의 칼럼 _ 이노성_국제신문 스포츠부장 | 30 | 「2017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 |
| 10 | 파워인터뷰 1 _ 최명희_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 32 |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 12 | 파워인터뷰 2 _ 김주호_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위원장 | 34 |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
| | | 36 | 구군체육회 소식 |
| | | 45 | 회원종목단체 소식 |
| 14 |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 | |
| 18 | 아디다스 마이런 기부금 전달식 | 54 | 겨울철 운동, 몸을 먼저 이해하자! |
| 20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결의대회 | | |
| 22 | 부산스포츠클럽 회원 가족체육대회 | 58 | 책소개 _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
| 24 | 제3회 부산꿈나무 체조챌린지대회 | | |
| 26 | 부산·가오송 생활체육국제친선교류대회 | | |

부산체육 2018 1+2 통권 11호 부산체육인은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염원합니다.

발행일 | 2018년 1월 10일 (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11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송미현 편집·취재 서원택, 하나근, 김민지

발행처 | 부산광역시체육회_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부산광역시체육회 Tel 051-500-7900 Fax 051-500-6306

디자인·인쇄 | 한글그래픽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65번길 41(범천동) Tel 051-632-7842 www.hanguel.co.kr

부산 위상을 키우는 스포츠! 시민건강과 미래희망을 키우는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스포츠!

2018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스포츠로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향해갑니다.



서 병 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스포츠 도시 부산”을 위해

2018년 무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 만들기에 아낌없는 열정을 쏟고 계신 구·군체육회 회장님, 종목단체 회장님, 선수 및 지도자를 비롯한 체육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체육은 체육회 통합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추진력과 화합을 통해 내·외부적 역량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18년에도 부산 체육인의 합심과 협력을 통해 부산 체육이 한 단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는 부산을 선진도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더욱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막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를 통해 풍요롭고 건강하며 품격 넘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스포츠 도시로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부산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부산, 스포츠 도시 부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석 준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부산 체육의 발전을 기대하며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가 지나가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 체육인 여러분과 부산시민들께 「부산체육」 신년호를 빌려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지난 일 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의 체육 발전을 위해 심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산도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건강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체육 선진국은 전문적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앞으로의 역할에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곧 2월에는 전 인류의 축제인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부산은 눈을 보기 힘든 지역적 특성상 동계 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지만, 빙상 경기처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의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여 동계스포츠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부산 건강학생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Good Smile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 분야와 보건, 영양 분야가 협업하여 몸과 마음이 튼튼한 부산학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스포츠클럽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고, 아이들의 기초체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올해 무술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정유년은 사회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무술년은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가 힘차게 밝은 만큼 부산 체육인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마음속에 품은 목표를 모두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성 제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는 알 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8년 무술년은 부산체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우리 부산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이어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입니다. 부산 선수들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습니다. 남은 기간 대회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해 우리 선수들이 세계인의 겨울 축제에서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선전과 부산체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부산선수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봅니다.

부산 체육인 여러분!

사실 눈을 볼 기회가 거의 없는 부산에서 동계 올림픽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배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수 개인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비인기 종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새로운 여가 활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체육은 여가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부산시가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통합하고 생활체육 참가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부산체육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체육을 책임지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며, 부산시민과 체육인이 거는 기대도 이와 비례해 커질 것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함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부산지역 체육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칼럼 체육지도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국제신문 스포츠부장
이 노 성

“뭘, 다른 거 하면서 살 순 없을까?”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친분 있는 체육인들과 소주잔을 기울일 때 꼭 나오는 푸념이다. 지도자 경력 20년이 넘는 A씨의 한숨 섞인 하소연. “20년을 일해도 월급 200만 원에 턱걸이 한다면 누가 믿을까요?”

A씨는 비정규직이다.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서 한 번도 정규직이 된 적이 없다. “솔직히 우리나라 체육 지도자 가운데 교사 말고 정규직이 없습니다. 매년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감독님’ 하고 품에 안기는 제자들 못 볼까 봐...”

전담 지도자 정규직 전환 감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2016년 내놓은 ‘운동선수 진로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364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은퇴선수의 56.3%가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은 16.1%에 불과했다. 취업자의 63.3%는 체육계에서 일했다. 연봉은 2,000만 원 미만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은퇴선수 대부분이 ‘연봉 2,000만 원 미만의 비정규직 지도자’로 일한다고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직업군 가운데 비정규직이 가장 광범위한 직종이 체육계라고 진단한다. ‘실업팀에서 은퇴하면 모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던 선배들의 무용담은 이제 전설이 됐다. 현재의 젊은 지도자는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 부업은 필수다. 대리운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도자는 솔하게 많다.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 소속 초·중·고교 지도자들이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연 것도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체육 지도자는 학교 엘리트 운동부를 담당하는 감독·코치부터 체육수업을 돕는 월급 130만 원대의 스포츠 강사까지 다양하다. 기업과 자치단체 소속의 실업팀이나 고교 운동부를 맡는 부산시체육회 순회코치도 있다. 공통점은 언제나 '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0' 정책도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교육부는 스포츠 강사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 전문 지도자 역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추세에 유독 체육계만 소외된 것 같아 안타깝다.

신분이 불안해도 그들은 '스승'이다. 10여 년 전 한 중학교 역도부를 취재했을 때다. '운동을 잘 할 것 같지 않은' 체격의 선수 한 명이 눈에 띄었다. 당시 코치 B씨는 기자를 훈련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귓속말로 속삭였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정 아이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면 끼니 걱정은 해결하잖아요."

‘원인의 원인’을 찾아야

지난 연말 주요 일간지가 선정한 '올해의 책'에 빠지지 않고 뽑힌 책이 있다. 고려대 김승섭(보건과학대) 교수가 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다. 저자는 말한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당신을 아프게 했어요."

김 교수는 우리 사회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원인의 원인'을 찾아 처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보자. 1차 원인은 불을 낸 개인에게 있다. 한 꺼풀 벗겨보면 불법 증·개축이나 스프링클러 미작동이 발견된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주·정차나 부족한 소방인력도 화재를 조기 진압하지 못한 걸림돌일 수 있다. '원인의 원인'은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지도자가 많은 원인은 뭘까. 재원이 부족해서일까. 올해 부산시 체육 예산은 1,100억 원이 넘는다. 부산시가 '체육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8,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만큼 예산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지도자가 소속된 부산시 교육청 예산까지 합치면 절대 적지 않은 규모이다.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만 조정해도 지도자 처우 개선은 가능하다.

낮은 관행을 철폐해도 정규직화 재원은 확보된다. 예를 살펴보자. 엘리트 체육계는 전국체육대회 성적에 목을 맨다. 종합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거액을 들여 다른 시도 소속의 메달 유망주를 스카우트한다. 상당히 많은 체육 예산이 매년 스카우트 비용으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성적에 '다걸기' 하는데도 엘리트 체육의 기반은 더 나빠지고 있다. 여자 핸드볼 명문인 부산 백양고는 내년 선수가 모자라 엔트리(7명) 꾸리기도 힘든 형편이다.

‘스포츠 복지’는 지도자부터

근대화 시기 메달은 곧 도시의 위상이었다. 국민들도 국제대회 성적을 통해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는 극소수만 운동하고 나머지는 학원에서 지쳐가는 왜곡된 구조로 변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뒤편엔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한 패자들이 더 많은데도 우리는 모른 척했다. 김연아의 그늘에 가린 비정규직의 현실은 늘 '국위선양'이라는 그림자에 묻혀 조명되지 못했다.

새해 체육계의 화두는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 '스포츠 선진국'이다. 누구나 시간·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스포츠 서비스를 받는 '스포츠 복지'와 '스포츠 기본권'이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 목표다.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역시 비정규직 제로화에 맞춰져 있다. 체육 정책의 패러다임과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무술년에는 메달보다 사람에 투자하자. 지도자의 처우부터 개선하자. 전국체육대회 순위 경쟁만 포기해도 재원은 나뉠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메달 순위를 집계하지 않는데 우리만 집착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순위를 등한시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은 접자. 생활체육 강국 독일은 동계올림픽 메달이 377개로 미국(282개)보다 훨씬 많은 세계 1위다.

"체육인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상상만 해도 유쾌한 공약을 실현하려면 부산시나 부산시체육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 전문지도자를 관리하는 교육당국부터 달라져야 한다. 실업팀을 운영하는 기업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 '황금 개미 해'가 지도자 처우 개선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

파워인터뷰 1

최명희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여성,
체육의 새 지평을 열다!



여성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의 땀방울로 결과를 보여준 그녀,
이제는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부산시민과 체육인 모두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장 활동 그리고 여성토크콘서트 개최

2002년 1월, 한국피트니스협회의 탄생과 함께 에어로빅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선수 육성에 힘써온 최명희 부회장은 여성의 지위가 조금씩 변화함에 따라 여성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최명희 부회장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체육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여성체육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토크콘서트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는 새롭게 출발한 여성체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부산에서 활약 중인 여성 체육인들이 가진 부산 여성체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여성체육의 변화를 언급했다.

이처럼 최부회장은 여성체육위원회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찾고자 늘 노력한다.

스포츠 성장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계속되는 체육 사랑

“체육복지에 예산을 지원하여 기존에 있는 체육관과 접근성이 좋은 시설센터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는 의료비 절감, 체육인과 자영업자들의 경기침체 극복,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에 해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매일 아침 러닝머신에서 걷고 가볍게 달리기를 반복하는것이, 온종일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최명희 부회장은

“우리 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민 누구나 운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부산시민과 체육인 모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파워인터뷰 2

김 주 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기획홍보부위원장

하나 된 열정,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성화봉송 사전 캠페인을 통해 2016년 한국 PR대상 금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김주호 부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30여 일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성화 봉송 행사를 통해 부산을 방문한 김주호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남은 기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

"PyeongChang is ready to welcome" 평창은 이미 세계를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8 평창대회 조직위원회는 '하나의 인력이 두 개의 대회를 준비한다'는 원칙에 따라 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 두 대회를 동시에 균형감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 평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조직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개최지인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 강원도, 개최도시와 힘을 합쳐 국민들의 관심을 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로 끌어오는 것이 앞으로 남은 저희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올림픽대회 개최식이거든요. 개최식 행사는 어떻게 치러지나요?

개회식은 원래 개막 전날까지도 비밀에 부쳐져야 하는 콘텐츠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전통문화 정신인 '조화'와 현대문화의 특성인 '융합'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개회식이 될 것입니다. 개회식의 주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Peace in motion)'이며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물할 수 있는 개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의 동계올림픽대회와 비교할 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주요한 혁신은 어떤 것입니까?

역대 올림픽대회 역사상 가장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가 바로 최고의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폐회식장인 올림픽대회 플라자를 중심으로 모든 경기장이 30분 내에 위치해 있어 선수와 경기 중심의 올림픽대회를 치를 수 있는 최적의 경기장 구성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단과 일반 관중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기장 인근의 교통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대회 차량이 제 시간에 이동하고 도착할 수 있도록 대회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대회 전용도로를 운영하는 등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올림픽대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2011년 7월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경제, 문화, 환경, 평화, ICT올림픽대회라는 다섯 가지 목표를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목표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조직위 전체가 목표를 구현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강국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인 만큼 선수들이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최첨단 로봇이 선수단을 맞이하고, 대회전부터 대회 기간 동안 날마다 축제가 열리는 문화 올림픽대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참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평화올림픽대회 정신을 구현하고, 경제올림픽대회라는 목표에 맞게 재정 균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와 그린, 지속 가능한 환경 올림픽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이 다섯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조직위 직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회 비전인 'New Horizons'를 실현하고 역사에 길이 남는 올림픽대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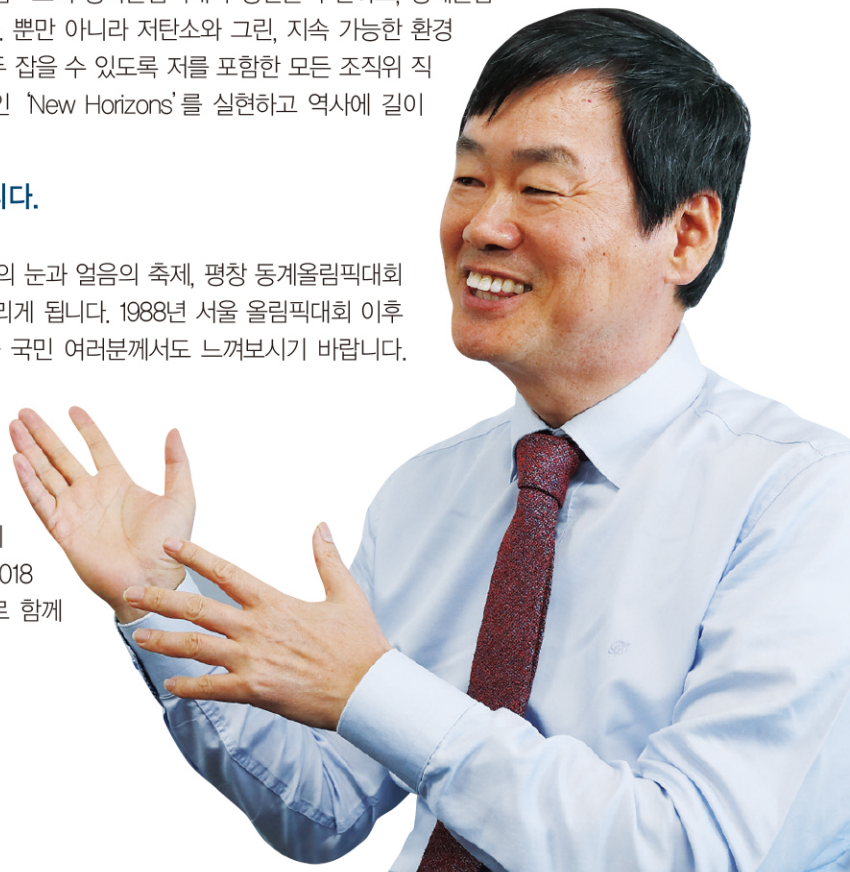
평창올림픽대회가 열리는 2018 새해를 맞았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신년인사 부탁드립니다.

올림픽대회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월이면 전 세계인의 눈과 얼음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막합니다. 그리고 3월이면 동계 패럴림픽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이후 30년 만에 이 땅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의 벅찬 감동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는 열과 성을 다하여 동계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를 준비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전 세계인들에게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도 뜨거운 함성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



“

이번행사로 부산체육에 대한 활동상을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부산체육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고 명실공히 부산을 대표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

부산체육 발전에 기여, 유공자 및 우수단체 격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19일(화) 코모도호텔 1층 연회장에서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부산 체육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우수단체를 시상하여 부산체육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부산체육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및 단체 등 분야별로 시상되었다. 시상은 부산광역시시장상과 부산광역시체육회장상으로 부산체육을 위해 재정기여도가 높은 기업, 국내종합대회 성적 및 각 대회 개최·참가 등 활동이 우수한 단체 등으로 선정되었다.



2017 발판삼아, 부산 체육의 새 장을 열어 나갈 것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올 한해 부산 체육 안팎에서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체육회 통합 이후 조직이 안정되면서 화합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선수들 기량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체육시설 인프라 건설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망의 2018년을 부산체육 발전사에 길이 빛나는 해로 만들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광역시 2017년 부산 체육 유공자 시상식

2017. 12. 19(화) 11:00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 부산광역시체육회



▶▶ 부산광역시장상(개인상)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송규정
2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신정택
3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박희재
4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유재진
5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최명희
6	부산광역시체육회	운영위원	김성식
7	부산광역시체육회	재정위원	최철수
8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	송순임
9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교류위원	장선미
10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력향상부위원장	박일진
11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권기우
12	부산광역시체육회	구입원심의위원장	유창준
13	연제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정진국
14	수영구총무과	주무관	차상명
15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김종선
16	부산서구스포츠클럽	회장	김동관
17	동구체육회	부회장	김중렬
18	영도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임민지
19	부산진구게이트볼협회	회장	김태우
20	동래구체육회	고문	조홍래
21	남구체육회	-	최말영
22	북구체육회	감사	손귀암

연번	소속	직위	성명
23	해운대구태권도협회	사무국장	배제성
24	사하구족구협회	회장	김주철
25	금정구체육회	부회장	양진락
26	강서구체육회	일반지도자	한미진
27	연제구체육회	감사	김인겸
28	수영구체육회	부회장	박종원
29	사상구줄넘기협회	회원	권영준
30	기장군체육회	사무과장	윤진철
31	동래구그라운드골프협회	회장	이정웅
32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회장	전윤애
33	부산광역시농구협회	부회장	박종윤
34	부산광역시당구연맹	상임고문	이종부
35	부산광역시배구협회	부회장	정영욱
36	부산광역시복싱협회	부회장	김덕진
37	부산광역시사악연맹	선수	채성준
38	부산광역시수영연맹	회장	정연승
39	부산광역시양궁협회	회장	이승락
40	부산광역시유도회	지도자	성중경
41	부산광역시탁구협회	이사	윤상준
42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생활체육연맹회장	신용상
43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사무국장	송재복
44	부산광역시핸드볼협회	회장	이균태

▶▶ 부산광역시장상(단체상)

연번	소속
1	부산상공회의소

연번	소속
2	부산광역시체육회회원종목단체장연합회



▶▶ 부산광역시회장상(개인상)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	서경애
2	부산광역시체육회	운영위원	오덕자
3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	김대근
4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	김수진
5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	김윤정
6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	김혜정
7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	이진숙
8	부산광역시체육회	학교체육위원	박이현
9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	이재수
10	부산국민체육센터	직원	조수호
11	북구국민체육센터	사무국장	장성우
12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손승우
13	서구체육회	지도자	정순영
14	영도구태권도협회	사무국장	하태환
15	남구체육회	이사	조억래
16	북구축구협회	사무국장	김성현
17	사하구축구협회	회장	노정석
18	금정구체육회	고문	김선호
19	강서구체육회	이사	홍병대
20	연제구축구협회	회장	고영대
21	부산광역시검도회	부회장	박민수
22	부산진구게이트볼협회	경기위원	서관순
23	연제구국악기공협회	사무국장	임민정

연번	소속	직위	성명
24	영도구그라운드골프협회	회장	유병삼
25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지도자	조경원
26	부산광역시남시협회	사무국장	김성민
27	부산광역시당구연맹	전무이사	한봉희
28	동성고등학교(배구부)	감독	정현식
29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문유태
30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	부회장	정완영
31	부산광역시복싱협회	회장	조수연
32	부산광역시불링협회	이사	이동수
33	부산광역시세탁타크로협회	부회장	김명하
34	부산광역시수상스카웨이크보드협회	이사	정규봉
35	부산광역시수영연맹	전무이사	윤미연
36	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	부회장	김주혁
37	부산갈매기씨름단	선수	이영호
38	삼정고등학교(유도부)	선수	김하윤
39	연제구청(육상팀)	감독	임성우
40	부산광역시탁구협회	경기위원	정은숙
41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생활체육연맹부회장	김정근
42	금정구파크골프협회	회장	이태로
43	부산광역시핸드볼협회	이사	신창호
44	부산광역시국무도연맹	이사	우명주
45	부산광역시킥복싱협회	심판위원장	양한용
46	부산광역시합기도중앙협회	사무국장	정용구

▶▶ 부산광역시회장상(단체상)

연번	소속
1	북구체육회
2	금정구체육회
3	연제구체육회
4	부산광역시검도회
5	부산광역시농구협회
6	부산광역시씨름협회
7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8	부산광역시복싱협회
9	부산광역시불링협회

연번	소속
10	부산광역시육상연맹
11	부산광역시스키협회
12	부산광역시탁구협회
13	(주)화승엑스윌
14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15	부산광역시시체육회회원종목단체실무자협의회
16	부산체육고등학교
17	경남고등학교



아디다스, adidas®

러너들의 축제 통한 기부

아디다스, 부산시에 체육발전기금 1억 원 기부
부산지역 올바른 스포츠 문화 확립 · 활성화 목적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난 12월 11일(월) 부산시청에서 지역 내 올바른 스포츠 문화 확립 · 활성화와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4월 16일(일)에 개최된 '2017 아디다스 마이런 부산' 마라톤 대회 참가비 일부를 기부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전달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부산MBC 김용성 상무, 아디다스코리아 강형근 부사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아디다스가 전달한 기부금은 부산시의 체육발전을 위해 부산시체육회 및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아디다스 코리아 강형근 부사장은 “이번 기부금을 통해 부산시 스포츠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민은 다양한 스포츠 문화행사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디다스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부산에서 2만여 명의 러너들이 참가하는 ‘마이런 부산’ 마라톤 대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 부산문화방송과 함께 부산 시민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에도 마이런 부산 마라톤 대회 참가비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결의대회

지난 12월 18일(월)부터 12월 22일(금)까지 5일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경기장 지하1층 대강당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체육회 비전과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체육회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진천선수촌 견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정책연구센터 이병진 연구위원의 ‘대한체육회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체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였다.



2020년이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체육회가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선정한 주요 아젠다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참여율 65%, 세계경기력 TOP10, 체육시스템 선진화를 목표로 평생스포츠 · 선진스포츠 · 행복스포츠 · 희망스포츠를 전략방향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 경쟁력 강화,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계 일자리 확대를 추진 과제로 두었다.





앞서 언급된 추진과제로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체육활동의 생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는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여건 보장·전국규모대회 활성화 및 종목저변 확대·국제스포츠 위상을 강화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방과 후 스포츠활동 활성화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제 정착·전문형스포츠클럽 단계적 육성 방안이 제시 되었으며, 체육계 일자리 확대로는 체육단체 기능 강화·체육지도자 확대 배치·체육계 재정자립 기반 조성 등으로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번 결의대회로 우리 체육계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의 성공을 기원한다.





부산스포츠클럽 회원 가족체육대회



스포츠를 통한 부산시민 유대감 강화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16일(토) 체육회관 4층 체육관에서 부산스포츠클럽 회원 및 학부모 등 300명이 참가한 '부산스포츠클럽 회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육상·수영·체조·스쿼시·양궁 회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지난해 추가로 개설된 농구·당구·탁구 회원들도 참가하여 스포츠클럽 회원으로서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체육대회는 전략줄다리기, 2인3각, 뒤집기, 깃발서바이벌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지원하는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력평가로 진행되었다. 체력평가는 체지방·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민첩성·순발력·협응력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스포츠클럽 회원 및 지도자가 참가하여 선수로서의 기량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가족체육대회를 통하여 부산스포츠클럽 회원의 친목도모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 및 시민들께 건강증진의 기회 제공

북구국민체육센터

작년 7월부터 탁구 성인반을 개설하여 주3회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체력인 스트레칭과 개인레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은 가족 같은 화목한 분위기로 친목도모는 물론, 탁구 종목의 자녀들과 가족대회에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증진의 기회와 탁구 종목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_이명옥 탁구 강사

스포츠당구교실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위치한 부산시당구연맹 훈련장에서 기초반·성인반·노인반으로 당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칭은 기초체력인 자세와 공의 방향 등 기본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구 종목은 정적인 스포츠이므로 학생들에게는 집중력을 길러주며, 어른들에게는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구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_김종구 강사



38개 학교, 꿈나무들의 열띤 도전 제3회 꿈나무 체조챌린지대회

지난 12월 9일(토) 사직체조체육관에서 ‘제3회 부산꿈나무 체조챌린지대회(이하 챌린지대회)’가 개최되었다. 기술, 체력, 유연성 등 총 3개부 12개 세부 종목에 38개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부산 체조 꿈나무들, 내일을 향해 뛴다

부산의 희망찬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우수한 체조 꿈나무를 선발·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챌린지대회는 1~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비전문선수들이 참가하는 챌린지대회는 전문 선수들이 참가하는 체조대회와는 달리 학생들의 기본적인 체력 부문을 겨루었다. 측정종목은 뒤편·평균대·철봉과 같은 기본기술 부문과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 등의 체력부문, 좌전굴·고무줄 돌리기 등 유연성 부문 등 3가지 부문으로 순위를 가렸다. 특히 올해는 싱가포르 जिनास्टिक 클럽단원 20명이 부산체조장을 방문하여 향후 한국-싱가포르 체조교류전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체조 전문선수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체조는 수영, 육상과 더불어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종목이다. 일선 학교에는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체조 전문선수로 육성하고자 한다. 체조종목은 물론이고 다른 종목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선수 수급이 어려운 종목에 선수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선수 발굴 체계를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경훈 부산광역시체조협회장은 “여러분의 밝은 미래는 비단 여러 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원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챌린지대회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고, 부산의 체조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체조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챌린지대회 개최를 통해 체조가 ‘즐거운 체조’, ‘재미있는 체조’로 인식됨은 물론, 향후 엘리트 체조선수 수급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여 내 고장 부산을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체조 영재교실’ 참가 신청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체조협회에서 주관하는 ‘체조 영재교실’은 2018년 1월 3일(수)부터 차기년도 대회까지 사직체조체육관에서 운영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인원은 학년별 남·여 각 3명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수요일, 토요일로 진행되며 문의전화는 051)503-7514이다.



생활체육을 통한 국제 교류

부산-가오슝 생활체육국제친선교류대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13일(수)부터 12월 16일(토)까지 4일간 대만 가오슝에서 국제교류를 통하여 부산과 가오슝의 친선과 교류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생활체육국제친선교류대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체육회 유재진 부회장은 이번 교류대회 단장으로 참가하여 "친선교류대회에 함께하는 소프트볼과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은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고 뜻깊은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상호 발전 및 업그레이드 계기 마련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이번 대회를 통하여 애국심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으며, 에티켓과 기술 향상 방법 등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일본과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통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동호인들과 부산을 찾아 교류전이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3월 17일(토) 대만에서 개최되는 '그라운드골프 세계대회'에 재방문 요청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라운드골프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_이유석 사무국장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대만의 소프트볼 동호인들은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학교 안에 소프트볼 전용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선수층이 두텁고 경쟁력이 높아져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 소프트볼 전용구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교육청과 체육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인터뷰_함현용 사무국장

「문화체육자원봉사자 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 수여



“

남구체육회는 지난 12월 8일(금)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
관하는 '2017 문화체육자원봉사자 대회' 에
서 체육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



남구체육회는 평소 문화·체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화체육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다. 또한 봉사단 운
영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게 활동처 제공과 원활한 대회나 행사 진행을 위해
활동처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줌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봉사단의 다양한 활동이 '문화품앗이(문화체
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홍보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
해 24회의 봉사 일감 등록과 100명의 봉사자 승인,
24회의 봉사 승인 완료로 시스템 활용도에 크게 기
여하였다.

남구체육회는 구 종목단체 및 동 체육회 사업과 활
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남구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범구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
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남구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

「2017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해 시설 활용도 제고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우수공공체육시설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전국 43개소가 신청하여 현장실사와 평가를 통해 권역별 최우수시설(최우수상) 5개소, 종합평가 우수시설(우수상) 5개소를 선정하는데, 북구국민체육센터는 경영관리와 운영,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018년 1월11일 오후 3시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었다.



2017 우수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광역시 북구청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에 따라 2011년 10월 개관과 함께 위·수탁 운영관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관리운영 중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수정예, 간축운영, 다기능 업무 역할을 소화하며 정부지원 대국민 스포츠복지사업인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를 2014년도부터 유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역-스포츠클럽사업에도 선정되어 부산북구스포츠클럽도 함께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주관하는 정부지원사업 『국민체력100, 지역스포츠클럽, 우수공공체육시설』 유치와 선정에는 직원 모두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북구청의 지원과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안전한 체육시설, 청렴한 공익운영, 스포츠 복지구현, 안정화 기반구축의 운영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유도하며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민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부산국민체육센터 문찬식 센터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상의 스포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시민만족·시민감동의 스포츠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며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수탁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꿈나무체능단 소식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1월 17일(금) 해운대 아쿠아리움에서 '꿈나무체능단 견학'을 개최하였다. 아이들에게는 오감을 자극하여 해양생물들은 눈으로 직접보고 만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이어서 지난 11월 21일(화)부터 11월 22일(수)까지 양일간 경주월드에서 '꿈나무체능단 겨울캠프'가 개최되었다. 꿈나무체능단원들은 단체 활동으로 협동정신 및 사회성을 기르고, 캠프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경험의 폭을 넓히고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환상을 한층 더 북돋워주어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하반기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처방안, 예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 체육지도자 '재난 매뉴얼 숙지 및 모의 훈련'

지난 12월, 제천 화재 참사를 겪으면서 부산국민체육센터에서도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난 매뉴얼 숙지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대처 매뉴얼을 각 수업장마다 부착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시 대피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수영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새벽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C반 월 ~ 금	06:00~06:50	성인 51,700 노인 48,400	성인 이상
생활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07:00~07:50 08:00~08:50	성인 67,100 노인 52,800 청소년 60,500	청소년 이상
어머니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09:00~09:50	성인 51,700 노인 48,400	성인 여성
웰빙수영(격일)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토	10:00~10:50		
웰빙수영(매일)	C반 월 ~ 금	11:00~11:50	성인 67,100 노인 52,800	
성인수영	A반 월, 수, 금 실버수영 화, 목(토)	14:00~14:50	성인 51,700 노인 48,400 44,000	성인 여성 65세 이상
성인수영	B반 월, 수, 금	15:00~15:50	성인 51,700 노인 48,400	성인 누구나
돌고래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토)	16:00~16:50	39,600 33,000	초1~6년 7세~초4년
하마수영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토)	17:00~17:50	39,600 33,000	초1~6년
직장인수영(격일)	A반 월, 수, 금	18:00~18:50	성인 51,700 노인 48,400	성인 누구나
직장인수영(매일)	C반 월 ~ 금 D반 월 ~ 금	19:00~19:50 20:00~20:50	성인 67,100 청소년 60,500 노인 52,800	청소년 이상
야간수영		21:00~21:50	성인 67,100 노인 52,800	성인 누구나
주말수영(배영 이상)	토	15:00~15:50	25,300	초2~6년
아쿠아로빅	A반 화, 목, 토 B반 화, 목, 토 C반 월, 수, 금 D반 화, 목, 토 F반 월, 수, 금 E반 화, 목, 토	12:00~12:50 15:00~15: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8:00~18:50	성인 60,500 노인 52,800 45,000	성인 여성 성인 누구나
월자유수영	A반 월 ~ 금 B반 월 ~ 금 C반 월 ~ 금 E반 월 ~ 금 F반 월 ~ 금	06:00~07:30 08:00~09:30 10:00~11:30 17:00~18:30 19:00~20:30	성인 53,900 노인 33,000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 실버수영, 돌고래B, 하마B, 아쿠아로빅의 토요일 프로그램은 자유수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헬스클럽	월 ~ 토	06:00~22:00 토 16:50까지	성인 47,300 노인 38,500 청소년 38,500	청소년 이상
배드민턴	A반 월 ~ 목 B반 월 ~ 목 C반 월 ~ 목 D반 월 ~ 목 E반 월 ~ 목 F반 월 ~ 목 G반 월 ~ 목 H반 월 ~ 목 I반 월 ~ 목 J반 월 ~ 목 K반 월 ~ 목 L반 월 ~ 목	06:00~06:50 07:00~07:50 08:00~08:50 09:00~09:50 10:00~10: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성인 45,100 노인 38,500	청소년 이상
탁구	A반 월 ~ 목 B반 월 ~ 목 C반 월 ~ 목	18:00~18:50 19:00~19:50 20:00~20:50	성인 41,800 노인 38,500	성인 이상
어린이배드민턴	월, 수, 금	16:00~16:50	38,500	초3~6년
농구	A반 화, 목 B반 월, 수, 금	16:00~16:50 17:00~17:50	초등 38,500 청소년 44,000	초1~6년
필라테스	B반 화, 목, 토 C반 화, 목, 토 G반 월, 수, 금 D반 화, 목, 토 F반 월, 수, 금 H반 월, 수, 금 A반 월, 수, 금 E반 월, 수, 금	06:30~07:20 09:00~09:50 09:00~09:50 10:00~10:50 14:00~14: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성인 50,600 청소년 45,100 노인 38,500	청소년 이상
실내 축구	화, 목	15:00~15:50	38,500	7세~초3년
발레	화, 목	16:00~16:50	33,000	5세~7세
음악 줄넘기	화, 목	17:00~17:50	38,500	초등학생
어린이발리댄스	월, 수, 금	17:00~17:50	38,500	7세~초등생
에어로빅	A반 월, 수, 금 B반 월 ~ 금	10:00~10:50 18:00~18:50	50,600 51,700	성인 누구나
발리댄스	월, 수, 금	16:00~16:50	성인 50,600 노인 38,500	성인 누구나
댄스스포츠	초급 화, 목 중급 화, 목	19:00~19:50 20:00~21:30	성인 39,600 노인 38,500 성인 44,600 노인 38,500	청소년 이상
줌바	월, 수, 금	17:00~17:50	성인 50,600	성인 누구나



요가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새벽요가	A반 월, 수, 금 B반 월, 수, 금 C반 화, 목 D반 월, 수, 금	06:00~06:50 07:00~07:50 08:00~08:50		
웰빙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C반 월, 수, 금	10:00~10:50 11:00~11:50	주2일반 38,500	청소년 이상
생활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14:00~14:50 15:10~16:00		
아로마요가	A반 월, 수, 금 B반 화, 목 C반 화, 목 A반 월, 수, 금	16:00~16:50 17:10~18:00	성인 50,600 노인 38,500 청소년 45,100	청소년 이상
직장인요가	B반 화, 목 C반 월, 수, 금 D반 화, 목	19:00~19:50 15:00~15:50		



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요일	시간	참가비	대상
속독	토	14:00~14:50	25,000	초등~중등
바둑	A반 토 B반 토	14:00~14:50 15:00~15:50	30,000	초1~초6
신나는 과학	금	15:10~16:00	30,000	6~초3
동화구연	월	15:10~16:00	25,000	5~7세
놀이(아이리딩)	수	15:10~16:00	30,000	6~7세
지니맥	A반 수 B반 수	15:10~16:00 16:10~17:00	30,000	유치부

※ 재료비 및 부가세 별도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신나는 겨울방학! 실내수영장으로!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2018년 1월 2일(화)부터 1월 13일(토)까지 겨울방학 수영특강 4개반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특강에는 물에 대한 적응훈련과 수영장 에티켓·발차기·호흡법 등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을 통해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수능 수험생 특별 할인 이벤트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18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쌓인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수험표를 제시하면 센터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 이용료 3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2월 28일(수)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할인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국민체육센터(☎ 051-365-7070)로 문의하면 된다.

수능 수험생!
30% 할인 EVENT!

**“수능보다 어려운 몸매관리”
 몸짱으로 대화가자!**

30%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시 합격자는 수시 합격증을!

북구국민체육센터 모든 프로그램 30% 할인!

할인 기간 정규프로그램 (수영, 스튜디오, 체육관) : 2017.11.21 ~ 2018. 2. 28 까지
 수시프로그램 (헬스, 자유수영) : 2017.11.16 ~ 2018. 2. 28까지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수영프로그램

성 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굿모닝	06:00 ~ 06: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07:00 ~ 07:50	초급	
		중/고급	
		연수	
		초/중급	
	08:00 ~ 08: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돌고래	09:00 ~ 09:50	초급	초급 (25명)
		중급	
		고급	
		연수	
	10:00 ~ 10:50	초급	중급 (25명)
		중급	
		고급	
		연수	
	11:00 ~ 11:50	초급	고급 (25명)
		중급	
		고급	
		연수	
거북이	15:00 ~ 15:50	초급	연수 (40명)
		중급	
		고급	
		연수	
	17:00 ~ 17: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굿나잇	19:00 ~ 19: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20:00 ~ 20: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21:00 ~ 21: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아쿠아로빅	12:00 ~ 12:50	초급	50명
	14:00 ~ 14:50	중급	80명
		고급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어린이 수영교실	12:00 ~ 12:50	어린이종합반	초급 (25명)
		어린이종합반	
	14:00 ~ 14:50	유아(월, 수, 금)	
		초급	
	17:00 ~ 17:50	중급	
		고급	
	18:00 ~ 18:50	초급	
		고급	

주말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 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주말수영	토, 일 11:00 ~ 11:50	주2회	주2회
핀수영	토, 일 09:00 ~ 09:50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 인 48,000원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참 가 일
(월)자유수영	1부 08:00 ~ 08:50	월 ~ 금 (주5회)
	2부 12:00 ~ 13:50	
	3부 18:00 ~ 18:50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 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 일	08:00 ~ 08:50			월 ~금
		12:00 ~ 13:50			
		18:00 ~ 18:50			
	주말	1부	09:00 ~ 11:50		주말/공휴일
		2부	13:00 ~ 17:50		
	12:00 ~ 13:00 수질정화시간 (입장불가)				
이용요금	회 원		비 회 원		
	성 인	2,300원	성 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스튜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 명	정 원
타바타 (월, 수, 금)	06:00 ~ 06:50	25명	성 인 50,000원
타바타 (화, 목)	06:00 ~ 06:50		성 인 40,000원
요가 (월 ~ 금)	07:00 ~ 07:50		성 인 57,000원
	19:00 ~ 19:50		청소년 50,000원
중바로빅 (월, 수, 금)	09:00 ~ 09:50		성 인 47,000원
뮤직필라테스 (화, 목)	09:00 ~ 09:50		성 인 42,000원
파워로빅 (월 ~ 금)	10:00 ~ 10:50		성 인 57,000원
	11:00 ~ 11:50		청소년 50,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 (월 ~ 금)	20:00 ~ 20:50		성 인 57,000원
	21:00 ~ 21:50		청소년 50,000원

스트레칭

프로그램	강습 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 ~ 12:50	월, 화, 목	30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 ~ 19:50	월, 화, 목	30	30,000원
바디 체인지(A)	15:00 ~ 15:50	월, 화, 목	30	30,000원
바디 체인지(B)	16:00 ~ 16:50	월, 화, 목	30	30,000원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정 원	(월)회비
배드민턴 (월 ~ 금)	06:30 ~ 07:50	40	30,000원
	19:00 ~ 20:20		
	20:30 ~ 21:50		

헬스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30 ~ 21:50	성 인 46,000원
	주말, 공휴일 19:00 ~ 17:50	청소년 41,000원

감면할인 대상자

할인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자
10%	6개월 등록자
5%	3개월 등록자

※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서류 첨부을 하셔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기간	기존회원 매월21일 ~ 23일 신규회원 매월24일 ~ 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월 첫 패주 / 셋 패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2078

구·군체육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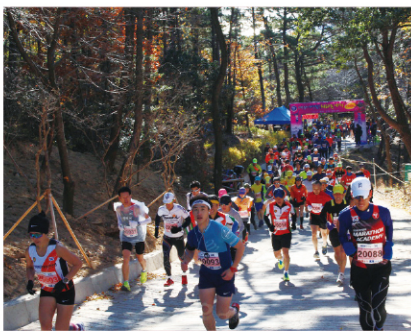
동구체육회

동구자전거연맹 낙동강 종주



동구자전거연맹은 지난 11월 10일(금) 창녕함안보에서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양산물문화원의 낙동강 길을 따라 65km를 종주하였다. 동호인들은 가을 바람에 흠날리는 갈대와 단풍구경을 하며 즐거운 라이딩을 가지며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 이바구숲길 마라톤대회



동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9일(일) 수정산 가족체육공원에서 주민 1천명이 참가한 '부산 이바구 숲길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다.

코스는 수정산 가족체육공원을 출발하여 부산진구 팔각정 및 사상구 엄광산 학운정을 돌아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5km, 10km, 21km로 진행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편백 숲길 사이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동구체육인의 밤



동구체육회는 지난 12월12일(화) 노블리아뷔페에서 동구체육회 임원 및 내빈·학교관계자·선수·동호인 등 170명이 참석한 '동구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한 해 동안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2018년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어린이체능교실



동구체육회는 지난 12월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양일간 경주 블루원에서 초등학생 35명이 참가한 '어린이체능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실내워터파크, 피자만들기체험, 서바이벌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협동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영도구체육회

영도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8일(토) 영도마린축구장에서 구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영도구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인 '영도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대향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경기종목인 에어봉릴레이·풍선기둥세우기·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축하공연으로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영도구 체육인의 밤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9일(수) 목장원에서 '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영도구체육회 임원 및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영도구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영도구 회원종목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7년 추진사업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체육발전에 공로가 컸던 유공자에 대해 국회의원상·부산광역시상·영도구청장상·영도경찰서장 감사장·해양경찰서장상·선수육성지원, 우수단체상을 표창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7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영도구체육회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부산진구체육회

제27회 부산진구청장기 태권도대회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토)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동아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 동호인 900명이 참가한 '제27회 부산진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겨루기, 품새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대회결과 단체전 겨루기 종합우승-현대유성체육관, 2위-한신체육관, 3위-동아대 전일체육관이 차지하였고, 품새 종합우승-성지민체육관, 2위-장무체육관, 3위-한신체육관이 차지하였다.

제22회 부산진구청장배 테니스대회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2일(일) 삼락테니스장에서 동호인 250명이 참가한 '제22회 부산진구청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홍배 우승-팀위너스, 청배 우승-국제백양클럽이 차지하였으며, 국제백양클럽의 김종근 동호인이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제9회 부산진구청장배 배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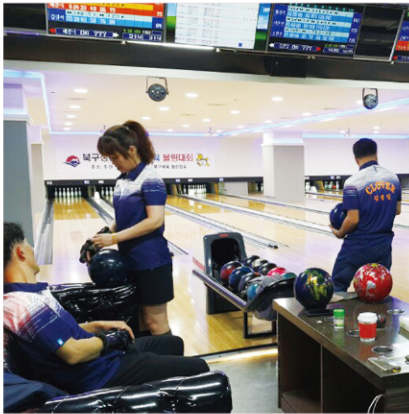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6일(일)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 및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에서 동호인 200명이 참가한 '제9회 부산진구청장배 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남자부 우승-동초회, 준우승-굿프렌즈A, 3위-부산진구, 굿프렌즈B, 여자부 우승-동부배사미, 준우승-에이퀵, 3위-부산진구, 발리원팀이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북구체육회

북구청장기 볼링대회



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2일(일) 레인보우스퀘어 볼링장에서 200명의 볼링동호인이 참가한 '북구청장기 볼링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우승-나이스클럽, 준우승-현대클럽이 수상하였다.

북구청장기 축구대회



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9일(수) 화명생태공원 축구장에서 400명의 축구동호인이 참가한 '북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우승-구포클럽, 준우승-구포2동클럽이 수상하였다.

북구청장기 및 북구탁구협회장기대회



북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0일(일) 강서체육관에서 400명의 탁구동호인이 참가한 '북구청장기 및 북구탁구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우승-월드클럽, 준우승-송유일클럽이 차지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11월 4일(토)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제18회 해운대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 동호회 소속팀이 참가하여 유대관계 증진과 친목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화합과 단합을 가지는 뜻깊은 대회가 되었다.

대회결과 종합우승-화신탈권도, 종합준우승-대성태권도, 종합3위-부산대박사태권도가 차지하였다.

제2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 회장배 스쿼시대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은 지난 11월 12일(일)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에서 '제2회 해운대구스쿼시연맹회장배 스쿼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로 스쿼시 동호인의 친목을 도모하며, 선수들 모두 땀 흘리며 값진 시간이 되었다. 대회결과 새내기남자 1위-신승환, 새내기여자 1위-김일경, 여자복식 1위-유향숙·백본경, 남자복식 1위-김태원·이근하, 혼합복식 1위-차성진·고영희 동호인이 차지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

제18회 해운대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구·군체육회 소식

제13회 해운대구탁구협회장배 및 탁구마트배 탁구대회



해운대구탁구협회는 지난 11월 19일(일) '제13회 해운대구탁구협회장배 및 탁구마트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남자단체전A부 우승-반송·한마음2·신도시1·해인1, 남자단체전B부 우승-해신1·청인1·중동·한마음1, 여자단체전 우승-한마음1·신도시1·래알TTC·한마음2 팀이 차지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와 함께하는 워킹데이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0일(일) 어린이대공원에서 해운대구민 80명이 참가한 '해운대구체육회와 함께하는 워킹

데이'를 개최하였다. 걷기와 동물원 관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해운대구체육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해운대구민들의 유대관계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하구체육회

제28회 사하구민체육대회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9일(일) 대대포해변공원에서 사하구민 3,000명이 참가한 '제28회 사하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윷놀이 등으로 사하구민들은 가을을 맞아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며, 대회결과 1위-신평1동, 2위-감천1동, 3위-다대1동이 차지하였다.

제9회 사하구청장배 탁구대회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9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9회 사하구청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A부 단체전 공동우승-에이스A·티타임·퍼스트·폰투스B 팀이 차지하였으며 B부 단체전 공동우승-에이스A·티타임A·한솔A·클러버 팀이 차지하였다.

갈맷길 걷기대회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5일(토) 사하구민 400명이 참가한 '갈맷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로 사하구민들은 트레킹과 함께 자연속을 걸으며 운동의 중요성과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제14회 사하구청장배 태권도대회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6일(토) 강서실내체육관에서 동호인 1,000명이 참가한 '제14회 사하구청장배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종합우승-당리태권도, 품새 1위-월드태권도, 품새 2위-백룡태권도, 품새 3위-대학태권도, 겨루기 1위-롯데캐슬태권도, 겨루기 2위-한호태권도, 겨루기 3위-조정희태권도가 차지하였다.

금정구체육회

금정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2일(일), 11월 19일(일), 11월 23일(목) 스포원테니스장과 6개소에서 '금정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개최종목은 테니스·축구·탁구·볼링·족구·태권도·그라운드골프 종목으로 동호인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회결과 테니스 금배조 우승-두일·은배조 우승-효정·동배조 우승-경남한신, 축구 직장부 우승-금정구청 환경미화·지역부 우승-남산축구회·직장부 개인 최우수선수상-환경미화팀 임동건선수·지역부 개인 최우수선수상-남산축구회 정진석 선수, 탁구 남자단식 우승-최규태·송재철·김재홍·차지현·최성·조영재 선수, 여자단식 우승-김순옥·이들란·권정희·김정미·석경애·허외숙 선수, 볼링 개인전 우승-조국지 선수, 단체전 우승-G.R팀, 족구 일반부 우승-형우·화목·부산중앙·오룩A, 금정관내부 우승-S&T모티브, 최우수선수상-강경종 선수가 차지하였다. 태권도는 개별 시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라운드골프 우승-김월선 동호인이 차지하였다.

제2회 금정구파크골프협회 장배 파크골프대회



금정구파크골프협회는 지난 11월 18(토) 금정산성다목적구장에서 '제2회 금정구파크골프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 많은 내·외빈과 동호인들이 대회를 빛내기 위해 참석하였고 맑은 하늘아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결과 남자 우승-최만도, 준우승-강근호, 3위-정은조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여자 우승-하말순, 준우승-강성남, 3위-한필순 선수가 차지하였다.

제6회 금호타이어배 및 금정구야구협회장배 동계야구대회



금정구야구협회는 지난 12월 10일(일) 금정구민운동장에서 '제6회 금호타이어배 및 금정구야구협회장배 동계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갑작스런 우천으로 인해 운동장이 젖었지만 참석한 동호인들과 내·외빈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2월20일(수) 골든웨딩타운에서 '금정구체육회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임시총회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와 심의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보고하였다. 이후 송년의 밤 행사에는 표창시상과 새해를 맞이하는 금정구체육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강서구체육회

강서구청장기 초·중학부 축구대회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8일(토) 명지동 근린공원, 신호체육공원에서 '강서구청장기 초·중학부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7개 초등학교 110명, 8개 중학교 1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멋진 실력을 뽐내었다. 대회결과 초등부 우승-명호초등학교, 준우승-덕두초등학교, 공동3위-녹산초등학교·대상초등학교가 차지하였으며 중학부 우승-낙동중학교, 준우승-명호중학교, 공동3위-가락중학교·명지중학교가 차지하였다.

제10회 강서구청소년 농구 클럽대항 길거리 농구대회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2일(수) 낙동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18개 클럽 70명의 학생이 참가한 '제10회 강서구청소년 농구클럽대항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선수들은 팀의 화합과 협동심을 보여주었으며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결과 우승-신호A팀, 준우승-신호C팀, 공동3위-낙동A팀·가락A팀이 차지하였다.

연제구체육회

연제구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



연제구족구협회는 지난 11월 12일(일) 연제구민운동장에서 동호인 400명이 참가한 '연제구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로 족구 동호인들간 유대감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결과 우승-첼라코비체스파르타클럽, 준우승-워킹투게더클럽이 차지하였다.

제11회 연제구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



연제구탁구협회는 지난 11월 12일(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11클럽, 2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제11회 연제구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남자단체전 우승-동그라미A·B클럽, 여자단체전 우승-엑티비A·연제탁구클럽이 차지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연제구체육회 회원단체 임원 수련대회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9일(일) 전라남도 해남 일원에서 연제구체육회 회원단체 회장 및 사무장 등 40명이 참가한 '연제구체육회 회원단체 임원 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해남군에 위치한 두류산 등산대회를 비롯해 강진과 장흥일대를 둘러보며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제구축구협회 고문기축구대회



연제구축구협회는 지난 12월 3일(일)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축구동호인 240명이 참가한 '연제구축구협회 고문기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결과 우승-연우축구회, 준우승-건우축구회가 차지하였다.

연제구테니스협회장기 테니스대회



연제구테니스협회는 지난 12월 10일(일) 사직실내테니스장에서 10클럽, 340명의 테니스 동호인이 참가한 '연제구테니스협회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결과 우승-하나클럽, 준우승-월드메르디앙(청)클럽, 공동3위-연산LG(청)·현대홈타운(청)클럽이 차지하였고, 최우수 선수-하나클럽 박찬웅 선수, 우수선수-월드메르디앙(청)클럽 지희숙 선수가 차지하였다.

연제구 체육인의 밤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2일(화) 다이아몬드호텔 대연회장에서 체육회 임원 및 각 종목별 회장 등 230명이 참석한 '연제구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공로가 많은 종목별 유공자 17명에게 연제구청장 표창을 시상하고 연제구체육회의 안녕과 발

전을 전하며, 2018년에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체육회

수영구청장배 태권도대회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1일(토) 수영구민체육센터에서 태권도 동호인 200명이 참가한 '수영구청장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호인들은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태권도인 상호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장이 되었다.

수영구민체육대회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2일(일) 수미초등학교에서 수영구민 2,500명이 참가한 '수영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이날 줄다리기, 릴레이, 바구니 공넣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영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땀과 열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수영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수영구축구협회는 지난 11월 26일(일) 수영사업소축구장에서 축구 동호인 350명이 참가한 '수영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칠산축구회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수영구골프협회 고문배골프대회



수영구골프협회는 지난 12월 8일(금) 베이사이드CC에서 골프동호인 32명이 참가한 '수영구골프협회 고문배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한 골프 동호인들은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었다.

수영구체육인의 밤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1일(목)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수영구체육회 내·외빈 80명이 참가한 '수영구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영상물 시청으로 1년간 수영구체육회의 활동상을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수영구체육회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별 회장 등 60명의 임원이 참석한 '사상구체육회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사상구체육회의 단합을 위해 마련한 행사에는 약 80분 정도 소요되는 지심도투어를 한 후 웰빙 하우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찬을 가졌다.

제14회 사상구청장기 탁구대회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9일(일) 사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사상구 탁구 동호인 20팀, 373명이 참가한 '제14회 사상구청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결과 남자 단체전 우승-우정클럽, 준우승-력키클럽, 3위-우리동네타구장클럽·TNT클럽이 차지하였고, 여자 단체전 우승-스마트클럽, 준우승-맘클럽, 3위-청구클럽·력키클럽이 차지하였다. 이날 동호인들은 경기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고 대회가 잘 마무리 되었다.

사상구체육회

사상구체육회 단합대회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11월 12일(일) 거제지심도에서 회장·부회장·이사·종목

구·군체육회 소식

사상구체육인의 밤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3일(수) 사상구체육회 관내 뷔페에서 '사상구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28회 부산시민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해단식'을 진행 하였으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새해를 기약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장군체육인의 밤



기장군체육회는 지난 12월 8일(금) 기장 동양가든에서 체육회 대의원 및 이사, 직원 등 총 60명이 참가한 '기장군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한해를 되돌아보며 2018년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장군체육회

장수체육대학



기장군체육회는 지난 11월 8일(수) 월드컵빌리지 인조B구장 및 정관물빛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장수체육대학'을 개최하였다. 이날 그라운드골프 · 게이트볼 · 파크골프 동호인이 210명 참가하여 동호인간 친목을 도모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국무도연맹〉

제12회 국무도연맹회장기 국무도대회 개최

지난 12월 3일(일) 토현중학교체육관에서 국무도 동호인 300명이 참가한 '제12회 국무도연맹회장기 국무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참여 동호인의 친목도모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회결과, 종합우승-으뜸클럽, 준우승-천일클럽, 3위-해성클럽이 차지하였다.

〈부산광역시낚시협회〉

제40회 부산광역시장기 단체바다낚시대회 개최

지난 11월 26일(일) 경상남도 통영시 척포항 일원의 갯바위에서 낚시 동호인 338명이 참가한 '제40회 부산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단체바다낚시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의 생활낚시 클럽동호인들과 일반 낚시동호인이 참가하여 지역주민들 간에 생활낚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동호인들은 대회를 통해 자연보호 활동을 같이 병행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결과 1위-44번팀(이강식 · 이강욱), 2위-27번팀(정인길 · 조병일), 3위-56번팀(김기철 · 김기권)이 차지하였다.



〈부산광역시농구협회〉

제20회 부산광역시장기 생활체육농구대회 개최

지난 12월 17일(일)과 12월 24일(일) 체육회관에서 농구동호인 200명이 참가한 '제20회 부산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우승-장산클럽, 준우승-클린샷, 3위-마이애미 · 벨로시티 팀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선수상-장산클럽 왕정운 선수, 우수선수상-클린샷 송경호 선수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는 농구 동호인간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며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배구협회〉

부산광역시장배 배구대회 개최

지난 11월 10일(금)부터 11월 12일(일)까지 기장체육관 주경기장에서 배구종목의 활성화와 공동체의식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배 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승리 위주가 아닌 배구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배구 대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대회결과, 남자초등부 우승-모라초등학교, 여자초등부 우승-수정초등학교, 남자중학부 우승-금정중학교, 여자고등부 우승-경남여자고등학교, 남자3부 우승-배사랑 팀, 여자3부 우승-동부배사미 팀이 차지하였다.



제16회 한·일(후쿠오카)

친선교류배구대회 개최

지난 11월 24일(금)부터 11월 26일(일)까지 부산여자중학교체육관에서 '제16회 한·일(후쿠오카) 친선교류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본지역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회결과, 여자부-2전 1승 1패(무승부), 남자부-2전 2승(부산 승)을 거두었다.



제6회 한·일(시모노세키)

친선교류배구대회 참가

지난 12월 7일(목)부터 12월 11일(월)까지 일본 시모노세키시무도관에서 배구를 통한 민간외교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6회 한·일(시모노세키) 친선교류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국제 스포츠 교류증진을 통하여 배구 동호인간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 배구 저변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회결과, 여자부-2전 2패(부산 패), 남자부-1전 1승(부산 승)을 거두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볼링협회〉

제34회 부산광역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 개최

지난 12월 1일(금)부터 12월 4일(월)까지 대연김스볼링경기장에서 볼링동호인 600명이 참가한 '제34회 부산광역시장기 전국남녀 볼링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남녀볼링대회는 부산유일의 전국대회로 볼링경기를 통한 시·도간 교류에 기여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경기력향상 및 꿈나무선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1983년도 개최된 이래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국대회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볼링대회는 선수단들이 부산에 상주하며 숙박·식사·관광 등을 통하여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승마협회〉

부산-후쿠오카 친선교류승마대회 개최

지난 12월 16일(토) 실내승마장에서 '부산-후쿠오카 친선교류승마대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한일 유소년·성인 승마인들의 친선을 다지고 선의의 경쟁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이번 유소년 대회에서 1위-나카모토 료 선수, 2위-사하초등학교 윤정 선수, 3위-중남초등학교 정연우 선수가 차지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씨름협회〉

천하장사씨름대축제(여자장사전) 참가

지난 11월 20일(월)부터 11월 26일(일)까지 나주 다목적체육관에서 '천하장사씨름대축제(여자장사전)'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부산에서는 여자부-70kg에서 3위로 김채린 선수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씨름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코리아오픈씨름페스티벌'이라는 대회명으로 12개국 72명의 선수를 초청하고 각 나라의 전통 씨름을 교류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몽골 씨름국제교류전 참가

지난 12월 8일(금)부터 12월 12일(화)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경찰체육관에서 '한·몽골 씨름국제교류전'이 개최되었다. 교류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이자 문화유산인 씨름의 저변을 다시금 확대하고 선수들은 피 땀흘려 준비한 만큼 최고의 기량으로 씨름 경기를 펼쳤다.

대통령배전국씨름왕선발대회 참가

지난 12월 22일(금)부터 12월 26일(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체육관에서 '대통령배전국씨름왕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스포츠인 씨름 활성화에 기여하고 참가선수들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회결과, 부산에서는 남자부 장년부 2위-여연태 선수가 차지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양궁협회〉

부산양궁협회장배 생활체육양궁대회 개최

지난 11월 25일(토) 강서양궁장에서 양궁동호인 80명이 참가한 '2017 부산양궁협회장배 생활체육양궁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리커브10m 여자일반부 1위-포항양궁클럽 서별 동호인, 리커브 10m 남자일반부 1위-화명동실내양궁장 구본진 동호인, 리커브 10m 여자초등부 1위-박초인 동호인, 리커브 10m 남자초등부 1위-남천초등학교 김지우 동호인, 리커브 20m 남자일반부 1위-강서양궁클럽 조상원 동호인, 컴파운드 50m·30m 여자일반부 1위-강서양궁클럽 이시우 동호인, 컴파운드 50m·30m 남자일반부 1위-미르양궁클럽 송승민 동호인, 베어보우 20m 남자일반부1위-포항양궁클럽 신용규 동호인이 차지하였다. 부산시양궁협회는 남·녀노소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양궁대회로 열어 양궁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가족 단위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육상연맹〉

국무총리기 전국마스터구간 마라톤대회 참가

지난 11월 18일(토) 제주도 동부일주로에서 부산마라톤 동호인 12명이 참가한 '2017 국무총리기 전국마스터구간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국제오픈마스터즈구간 마라톤대회가 함께 개최되어 육상 동호인들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모색하였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일상속의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조정협회>



제1회 부산광역시조정협회장배 비치조정대회 개최

지난 11월 5일(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조정동호인 230명이 참가한 '제1회 부산광역시조정협회장배 비치조정대회'가 개최되었다. 2016년 동남아시아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비치 조정대회는 2017년 12월 제1회 아시아대회가 중국에서 개최되며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가 홍콩에서 개최되는 등 생활체육 종목으로 각광받는 해양 조정 스포츠 종목이다. 지난 12월 15일(금)부터 12월 17일(일) 중국심천에서 개최된 '2017아시아인 비치조정선수권대회'에 이종우 수석부회장과 한양상 선수가 참가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토대로 대한조정협회와 2020년 아시안 비치게임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북부교육지원청 소년체육 실내조정대회 개최

지난 11월 4일(토) 서낙동강 조정카누 경기장에서 조정선수 120명이 참가한 '북부교육지원청 소년체육 실내조정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시조정협회는 올해 개최되는 교육감배 실내조정대회를 계기로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선수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등 악천후 시에 실내조정을 통한 실내수업 교육과정개발도 진행 중이다.



제7회 부산-후쿠오카 조정친선교류전 참가

지난 11월 25일(토)부터 11월 27일(월)까지 후쿠오카 아일랜드조정경기장에서 조정동호인 31명이 참가한 '제7회 부산-후쿠오카 조정친선교류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제55회 후쿠오카 시민조정대회'와 같이 개최되어 일본팀의 시니어 300세 이상(팀원의 총 나이)팀의 경기를 보며 시니어클럽의 활성화는 물론 주니어클럽도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부산조정협회 이종우 수석부회장은 "클럽차원의 교류인원확대를 다각적으로 연구중입니다. 홈스테이 등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인원이 보다 더 친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

제2회 부산광역시장배줄넘기대회 개최

지난 12월 17일(일) 동의대학교 효민체육관에서 줄넘기동호인 500명이 참가한 '제2회 부산광역시장배 클럽대항 줄넘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5인릴레이 1위-정관줄클럽, 7인릴레이 1위-용호클럽, 8자마라톤 1위-런투유클럽, 함께뛰기 1위-명성클럽, 긴줄손가위바위보 1위-경상클럽 · 개금줄클럽이 차지하였다.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제2회 협회장배 생활체조 경연대회 개최

지난 12월 9일(토) 부산여자대학교 다촌문화관에서 생활체조 동호인 1,100명이 참가한 '제2회 협회장배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대회로 체조종목이 더욱 활성화 되고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동호인 상호간 친목도 모는 물론 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결과, 종합대상-부산거점스포츠클럽 G.A.D팀이 차지하였다.



부산 · 싱가포르 생활체조 교류대회 개최

지난 12월 16일(토) 사직체조체육관에서 생활체조 동호인 50명이 참가한 '부산 · 싱가포르 생활체조 교류대회'가 개최되었다. 싱가포르의 जिम나стик클럽 단원25명은 부산체조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와 체조교류전을 통해 체조 동호인간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 체조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결과, 단체종합 우승은 부산시선수단이 차지하였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킥복싱협회〉

제3차 부산광역시킥복싱협회장기 킥복싱대회 개최

지난 11월 4일(토) 사직동 양정모기념체육관에서 킥복싱동호인 130명이 참가한 '제3차 부산광역시킥복싱협회장기 킥복싱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빈곤가정 아동돕기 기금마련을 같이 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빈곤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전달해 주었으며, 매년 킥복싱 지도자·임원·선수·동호인이 함께하는 대회로 킥복싱에 대한 협력과 우호증진의 기회가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금강클럽 창립40주년 정기월례대회 개최

지난 12월 12일(화)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금강클럽 창립 40주년 정기월례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선수간의 우의와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날 참가한 금강클럽 강혜연 회장은 "금강클럽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동호인들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재 28명으로 구성된 금강클럽 회원들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지만 고문들은 주춧돌처럼 클럽 회원에게 중심을 잡아주며 멤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시는 김경자(76세)·윤옥선(70세) 고문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우리 클럽이 오래도록 유지되며 좋은 성적으로 '금강클럽'이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자 우리 회원들의 바람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파크골프협회〉

제5회 부산광역시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난 12월 6일(수) 삼락 다이내믹 36홀 파크골프장에서 동호인 321명이 참가한 '제5회 부산광역시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 시니어 남자우승-북구 윤호영 동호인, 시니어 여자우승-북구 홍옥희 동호인, 일반 남자우승-부산진구 장기준 동호인, 일반 여자우승-사하구 이상금 동호인이 차지하였다. 부산광역시파크골프협회는 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부산광역시합기도협회〉

제18회 부산광역시합기도협회장기 합기도대회 개최

지난 12월 2일(토)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합기도 동호인 700명이 참가한 '제18회 부산광역시합기도협회장기 합기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합기도의 본질을 되새기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결과, 1위-신화합기도, 2위-정무관, 3위-검무관이 차지하였다.



겨울철 운동, 몸을 먼저 이해하자!

추운 겨울철엔 신체는 자연스레 움츠러든다. 그래서 어느 계절보다 운동 시, 더욱 신경 쓸 것이 많은 때다. 겨울철에는 야외 스포츠를 즐기다 관절이나 근육을 다치는 일 그리고 심혈관 문제로 인한 손상 등 기온에 따른 인체와 운동능력의 변화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온종일 따뜻한 방 안에서 두문불출하기 보다는 철저히 대비하며, 활기차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자.

겨울철 운동_ 체온이 핵심!

겨울철 건강관리의 핵심은 '체온 유지'에 있다. 추운 겨울철에는 특히 체온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몸의 면역력은 약 30%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약 5배 가량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체온을 사수하기 위한 세가지



운동

적절한 '운동'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준다. 특히 체지방을 줄이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량을 늘리는 근력운동을 주 2~3회 병행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이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약 10% 이상의 에너지를 더 소비하므로 다른 계절과 같은 운동량을 실행한다고 해도 몸의 에너지 소비는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겨울철 운동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온

겨울철에는 손, 발, 목 등 추위에 쉽게 노출되는 부위의 체온을 보호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장갑, 목도리, 핫팩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목도리만 둘러도 체감온도가 약 3도 가량 올라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겨울철 옷을 입을 때는 두꺼운 옷을 한 벌 입기 보다는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껴입는 것이 보온효과가 높다.



보식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증진시키는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늘, 계피, 인삼, 생강, 참쌀, 무, 꿀 등이 있다.



겨울철 운동, 이렇게 하자!

운동전 · 후 스트레칭 (Stretching Exercise)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 수축, 긴장하고 관절 주변의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근육이나 관절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정지한 상태에서 강한 운동을 급하게 시작하면 심장박동이나 혈압 등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생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체온이 상승하고 나서 본 운동을 해야 한다. 즉, 운동 전에는 전신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풀어준다. 운동 마무리단계에서는 천천히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5분간 정리운동을 실시한다. 이는 심박수와 체온을 점차적으로 정상수준까지 회복시켜 피로를 회복하고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낮이나 밤시간대 권장

이 밖에도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새벽 시간은 피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낮이나 밤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른 새벽에 운동을 하다 보면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과 뇌졸중이나 협심증이 유발될 수도 있다. 또한 중풍이나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있는 사람, 40살이 넘어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겨울철 새벽 운동은 가능하면 삼가하고 기온이 오른 낮 시간이나 몸이 충분히 활성화된 저녁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운동량을 줄이는 편이 좋다.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몸 상태 체크는 필수

겨울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전날의 스트레스나 평소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맥박을 재보는 것이다. 분당 맥박이 80회 이상이면 주의해야 하고, 100회 이상이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복장도 신경 써야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기온이 낮아 기온 역전 현상이 오래 지속된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나쁜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귀마개를 사용해 동상을 예방하고, 장갑을 끼는 것도 기본이다. 맨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어깨 부위가 경직되고,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만성질환 환자라면?

바깥기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실내운동이 권장되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추가로 들 수 있다.

>>고혈압, 심장질환자

- 아침보다는 낮 시간대에 운동하기
- 순간적으로 힘쓰는 운동 피하기
-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처럼 스스로 강도조절이 가능한 운동 선택하기

[자료 참조]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http://hqcenter.snu.ac.kr>
- 겨울철 운동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하라 헬스조선 2012.12.07일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20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인기 강의



지은이_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옮긴이_김태훈

출판사_8.0(에이트 포인트)

원제_Getting More

자료협조 : 8.0(에이트 포인트)출판사

20년 연속 와튼스쿨 최고 인기 강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에서 협상코스를 강의하고 있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20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의 명예를 차지한 자신의 강의를 고스란히 책에 담아냈다. 저자는 보통사람들의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 문제해결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철저한 방법론들을 소개한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책속으로

나는 내 협상 강의의 핵심을 책으로 접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그대로 실으려 한다. 이 책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획기적인 전략과 협상 도구를 제시할 것이다. 이 도구들은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협상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이다. 내 협상 도구는 모두 인간의 심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서 이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별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 서든지 통하는 이 협상법은 강경하고 위압적으로 나가야 한다거나 친절하고 유연해야 한다는 특정 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일상에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에 기반을 둔 뿐이다. 결국 내 협상법을 통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제1장_무엇이든 다르게 생각하라 中-

한 번은 강의에 늦은 적이 있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고장 난 트럭 한 대가 차선 하나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머지 차선에는 양 차선의 차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비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팔 수 밖에 없었기에 차에서 내려 제일 앞에서 반대편 차들을 막고 경적을 울려대는 택시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운전수에게 다소 강압적인 어투로 말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그러자 운전수는 몹시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런’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잘못된 협상법이 었다. 즉시 나긋나긋한 말투로 계면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조금만 양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다시 그를 최대한 존중하는 말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무래도 운전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실 줄 아는 분이 먼저 길을 열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제야 어깨를 으쓱하더니 차를 뺐다.

상대방의 기분과 입장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는가? 그 사람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의 지름길이다.

-제2장_사람과의 관계 中-



한 학생이 밤 11시 5분 전에 맥도날드에 가서 감자튀김을 샀다. 그는 감자튀김이 눅눅한 것을 보고 새 걸로 바꾸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점원은 5분 뒤면 문을 닫는다며 거절했다. 학생은 말없이 카운터 한쪽 끝에 있는 광고지를 들고 다시 점원 앞에 섰다. 유인물에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기 맥도날드 맞죠?”

점원은 고개를 고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 광고지에 언제나 신선함을 보장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문 닫기 5분 전에는 신선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결국 학생은 새 감자튀김을 먹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눅눅한 감자튀김을 그냥 먹거나 직원에게 화를 내며 항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학생은 아주 침착하게 맥도날드가 스스로 정한 표준을 이용했다. 이 방법은 공과 사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협상에서 대단히 강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상대의 표준을 이용하는 법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뛰어난 협상 도구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은 객관적인 표준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정한 표준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어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한다. 그래서 과거에 한 말이나 약속, 즉 표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이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제4장_표준과 프레임에 대하여 中

스튜어트가 제시한 열두 가지 협상 전략



1. 목표에 집중하라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목표 달성이다. 협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 몸짓 하나까지도 오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2.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상대가 생각하는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그들의 생각, 감성,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는지, 상대방의 어떤 부분에서 신뢰를 느끼는지도 알아야 한다.

3. 감정에 신경 써라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협상일수록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서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보살펴라. 그런 후 상대가 다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감정적 지불(Emotional Payment)’이라고 한다.

4. 모든 상황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라

모든 협상에서 만능으로 통하는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사람과 같은 내용으로 협상을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날의 날씨와 컨디션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자.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을 새롭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5. 점진적으로 접근하라

사람들은 종종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에서 실패한다. 성급한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위험요소를 키울 뿐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상대방을 목표 지점으로 끌어들여라. 협상의 매 단계마다 상대방과의 간격을 확인하라. 간격이 많이 벌어졌다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좁혀나가야 한다.

6.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쌍방의 가치 기준을 확인하여 한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상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다.

7. 상대방이 따르는 표준을 활용하라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 과거 발언, 의사결정 방식 등을 알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이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서 이탈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그 점을 지적하라. 이 전략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8.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상대에게 다 털어놓거나 만만한 상대로 보여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하라

대부분의 협상 실패는 부실한 의사소통에서 기인한다. 뛰어난 협상가는 뻔한 상황일지라도 이를 상대에게 꼭 알린다. 가령 협상이 더딘 자리에서 "오늘은 대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말이다.

10. 숨겨진 걸림돌을 찾아라

협상에 앞서 목표 달성을 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라. 진짜 문제를 찾으려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11. 차이를 인정하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실제로 협상에서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차이를 싫어하지만 뛰어난 협상가는 차이를 사랑한다.

12. 협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라

모든 협상 전략과 도구를 정리한 목록을 만들어라. 철저한 준비 없이 협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목록을 정리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저자소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STUART DIAMOND)는 와튼스쿨 MBA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로 일할 당시 풀리처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했지만 곧 변호사와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협상전문가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JP모건 체이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100대 기업 중 절반이 그에게 컨설팅을 받았으며,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UN 같은 국제기구도 그에게 자문을 구한다. 뿐만 아니라 와튼스쿨에서 20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로 선정되는 등 그는 현재 모교인 와튼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학 력

- 1992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1990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 1970년 리트거스대학교 영문학과 학사

경 력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교수



대한체육회

KSOC(대한체육회) 아젠다 2020!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 아젠다 2020’은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설된지 100년이 되는 2020년을 앞두고 체육발전의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대한체육회는 한국스포츠 100년 이정표를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체육회”라는 비전과 함께 5대 목표, 20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제2기 미래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운영 계획과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주요 골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40년까지 완전한 재정자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표어 아래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전문선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기초종목에 있어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뒤처지고 있다. 비인기종목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운동 안 하는 학생’과 ‘공부 안 하는 선수’로 양극화되어 왔다.

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소외계층들에게는 스포츠 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 보급해야 한다. 연간 1만명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체육계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처우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건강한 스포츠생태계를 갖춰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려면 제도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과감하게 배분해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체육증가’ 대한체육회에 확대하여 정률 배분하고 재정자립하는 것이 방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체계가 개선되면 NOC(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추가재정 확보로 체육선진화를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체육인 일자리 창출과 스포츠산업 발전 등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정부로부터 체육정책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독자적인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 체육단체가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스포츠선진국의 조건 중 하나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복지시대 구현을 위해 체육인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



부산시민이 만든

부산시민 11가지 건강생활 수칙



식사는 싱겁게, 골고루, 천천히 먹습니다.



술은 3잔 이하로 마시고, 권하지 않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말고 피하며,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3회 스트레칭을 실천합니다.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예방접종은 미루지 않습니다.



손씻기와 양치질은 잘하고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족(친지, 지인)과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내가 먼저 이웃과 웃으며 인사합니다.



우리 마을을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건강프로그램과 건강한 정책 만들기에 적극 참여합니다.

일주일에 세번이상 하루30분

스포츠733으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당신의 스키는 안전한가요?”



안전수칙
준수

수준에
맞는 운동

안전요원
위치확인



고급코스

중급코스

초급코스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사겠습니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

콜핑이면
충분하다

K[®]
KOLPING

국민바지, 콜핑!

국민바지! 콜핑이면 충분하다



콜핑 전속모델
서현진

플라폴리스 원단을 라미네이팅하여
방풍기능은 물론 보온성까지 뛰어난 콜핑 온돌바지
이제 온돌바지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베넬A KOP0977M/W

① 겉감: ACE POLAR TEK (FACE: POLYESTER 92%, POLYURETHANE: 8%)/
BACK: POLYESTER 95%, POLYURETHANE: 5%

② [M] : 30(76)/ 32(81)/ 34(86)/ 36(91)/ 38(96)/ 41(104) [W] : 27(69)/ 29(74)/ 31(79)/ 33(84)/ 35(89)

③ [M] BLACK, D-GRAY, D-NAVY [W] : BLACK, D-GRAY



세계 최대규모의 —
역사적인 엑스포가
2030년 부산에서
— 시작됩니다

BUSAN WORLD EXPO 2030